

“제주 와서 뒤늦게 발견한 꽃의 진가”

사려니숲 힐링 행사서 강경식 작가 북콘서트

“동백꽃이 예뻐줄 미처 몰랐어요. 제주도에 와서 위미 동백나무군락지의 동백을 보고 눈물이 났죠. 뒤늦게 꽃의 진가를 알아봤습니다.”

2년 전인 2017년 제주에 이주해 살고 있는 작가 강경식씨가 지난 25일 ‘제11회 사려니숲 에코힐링 체험행사’ 북콘서트에서 풀어놓은 나름의 고백이다.



지난 25일 표선면 남조로 북은오름 입구에서 열린 제11회 사려니숲 에코힐링 체험행사서 강경식 작가의 북콘서트가 진행됐다.

충정북도에서 35년간 교직에 몸담았던 강 작가는 정년퇴직 후 제주에서 사진을 찍고 일기를 쓰며 살고 있다. 그리고 사진과 일기를 묶어 제주도로 떠날 여행자와 사진가를 위한 계절·소재별 사진 촬영 안내서인 ‘제주도 사진일기 I’를 펴냈다.

제주의 아름다운 풍경을 담은 사진의 배경 중에는 ‘꽃’이 있는데, 그는 이날 북콘서트에서 제주의 ‘꽃’ 이야기를 주로 꺼냈다. 그는 탐방객들에게 ‘꽃이름에

서는 겨울 꽃이라고 하지만 진정으로 동백이 피는 시기는 봄이며, 가장 예쁜 때도 3월이다’라고 책에 쓴 동백꽃에 대해 설명했다. 덧붙여 친구들에게는 동백꽃이 예쁘게 피는 3월 말, 바쁘면 4월 초 제주에 오라고 권한다고 했다.

‘역세 찬양’도 이어졌다. 그는 “제주에 와서 제일 인상깊게 본 것이 역세였다. 오름 위에 올라가 내려다보는 역세는 훨씬 더 예쁘고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며 “만

약 그런 경험을 안해봤다면 꼭 한번 해보시라”고 추천했다.

제주 정착 후 처음 찾았던 사려니숲에서 만나 매료된 산수국의 이야기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산수국으로 인해 사려니숲이야말로 힐링의 최적지라는 생각을 하게 됐음을 전했다.

그는 조만간 펴낼 ‘제주도 사진일기II’에서 사려니숲길의 산수국 이야기를 소개할 예정이다.

오은지기자

순천대 총장에 제주 출신 고영진 교수



정부가 국립 순천대학교 총장에 제주 출신 고영진(61·사진) 교수를 임명했다.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출신인 고 총장은 제주제일고(19회), 서울대학교 식물병리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87년 순천대 식물학과 교수로 부임했고, 교무처장과 학생생활관장, 생명산업과학대학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한국식물병리학회와 살균제연구회 회장, 농림수산식품기획평가원 전문위원 등을 지냈고, 한국식물병리학회회학술상과 대통령표창 등을 수상했다. 고 신임 총장은 내달 3일 총장 취임식을 갖는다.

신산초 한마음 걷기행사서 난타 공연



신산초등학교(교장 오순애)는 지난 25일 신산리 마을회가 주최하는 한마음 걷기행사에 참여해 재능기부의 일환으로 난타 공연을 펼쳤다.

해안경비단 127의경대 환경정화활동



제주해안경비단 127의경대(대장 지상배 경감)는 지난 23일 표선면 세화2리 해안가에서 최근 폭우와 강풍으로 해안가에 밀려온 쓰레기를 수거했다.

제3회 서귀포시 건강가정 한마당



서귀포시건강가정지원센터(센터장 강현수)는 지난 25일 삼다체육공원 운동장에서 서귀포시민 130가족·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3회 서귀포시 건강가정 한마당’을 개최했다.

동정



나눔장터 개장식 관계자 격려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장 27일 제주시 소재 노란잠수함어린이집에서 열리는 ‘2019 공공형 OPEN-DAY 푸른 꿈까지 나눔장터 개장식’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지방분권협의회 제1차 회의 참석

◇강성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7일 제주도청 제1청사 별관 자연마루에서 열리는 ‘제2기 제주 지방분권협의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송향원 개원식 관계자 격려

◇김경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7일 송향원에서 열리는 ‘고령장애인거주시설 송향원 개원식’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휠체어농구대회 폐회식 참석

◇박호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7일 제주시 한라체육관에서 열리는 ‘제7회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 전국휠체어농구대회 폐회식’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강정 안전마을 행사 관계자 격려

◇김상철 대천동장 최근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2019 강정마을 화재 없는 안전마을 지정행사에 참석해 마을회원들을 격려.



대한체조협회 이사회 회의 참석

◇강창용 제주특별자치도체조협회장 지난 24일 대한체조협회 회의실에서 열린 이사회 회의에 참석해 오는 6월 제주에서 열리는 코리아컵 제주국제체조대회 행사 준비 등에 대해 보고하고 의견을 교환.

강태선 회장 등 제주대 발전기금 전달

제주대학교는 지난 24일 열린 제주대 개교 67주년 기념식에서 강태선(주)블랙야크 회장이 대학발전기금으로 2억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강태선(주)블랙야크 회장은 그동안 장학기금, 대학운영 및 시설지원 등으로 3억1000여만원을 지원했으며, 이날 2억원 출연으로 총 5억1000여만원의 발전기금을 기증했다.

이와함께 유성건설(주)(회장 오현봉)은 패션의류학과 학생 등 10명에게 각각 200만원씩 총 2000만원의



강태선



유성건



현재웅

‘유성 오현봉 장학기금’을 전달했으며, (주)한라산(대표 현재웅)은 간호학과 학생 등 9명에게 각각 1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서귀중앙여중 학교폭력 예방 건강축제



서귀중앙여자중학교(교장 오경규)는 지난 17일, 23일, 24일 3일에 걸쳐 ‘소통과 배려심 함양을 통한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라는 주제로 학년별 건강축제 개최를 통해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했다.

조천향우회 어버이날 기념 나들이 행사



조천향우회(회장 양군진)는 지난 24일 조천경로당 어르신들을 모시고 ‘어버이날 기념’ 나들이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어르신들은 금능석물원, 오설록, 카멜리아힐, 서커스월드 등을 찾아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제주 출신 강영은 시인 문학의집 특강



제주문학의 집(운영위원장 이종형)은 오는 30일 오후 7시 제주 출신 강영은(사진) 시인을 초청해 문학특강을 연다.

강영은 시인은 2002년 첫 시집 ‘스스로우는 꽃잎이’를 시작으로 ‘나는 구름에 걸려 넘어진 적이 있다’, ‘마고의 황아리’, ‘상냥한 시론’을 냈다. 시예술상 우수작품상, 한국시문학상, 한국문학작가상 등을 수상했다. 이번 문학특강에서는 ‘섬아, 나의 시(詩)야, 우리는 왜 섬을 향해 떠나는가’를 주제로 ‘섬’이란 메타포를 갖는 문학의 존재론적인 위치, 문학이 있어야 할 곳, 문학이 꿈꾸며 가고 싶어 하는 곳 등의 질문을 통해 문학의 본령을 찾아가는 시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문의 070-4115-1038.

우 축 승

PGA투어 챔피언 강성훈
(부: 강희남(주)부강산업개발 대표이사) · 모: 김혜순

PGA 투어 AT&T 바이런 넬슨 대회

2019년 5월 13일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AT&T 바이런 넬슨 대회 우승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부강산업개발 임직원일동